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3, 629-645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송 민 정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책임감, 기억확신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강박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진주, 부산, 청주, 마산 지역의 대학생 41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남성은 223명(53.7%), 여성은 192명(46.3%)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5세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강박신념 질문지-책임감 척도(OBQ-R),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 기억과 인지 확신척도(MACCS), Padua 강박 질문지(PI)를 사용하였다. 책임감, 기억확신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강박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이 사용되었다. 강박 증상을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나누어 강박사고 모형(연구모형 1)과 강박행동 모형(연구 모형 2)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책임감, 기억확신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 모형에서 책임감과 기억확신 모두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매개되었다.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부분매개되는지 혹은 완전매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였다. 강박사고 모형의 경우 부분매개 모형이 더 좋은 적합한 모형이었다. 즉,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직접 강박사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강박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박행동 모형의 경우 기억확신 완전매개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이 모형에서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매개되어 강박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책임감 또한 직접적으로 강박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억확신은 직접적으로 강박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책임감, 기억확신, 부적응적 완벽주의, 강박증상

---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규 /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Tel : 055-751-5781 / E-mail : rmk92@chol.com

www.kci.go.kr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란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불안장애이며, 강박사고(obsessions)와 강박행동(compulsion)을 주된 증상으로 가진다. 강박사고는 반복적으로 의식에 침투하는 고통스러운 생각, 충동 또는 심상을 말하며 음란하거나 근친상간적인 생각, 공격적이거나 신성 모독적인 생각, 오염에 대한 생각, 반복적 의심, 물건을 순서대로 정리하려는 충동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강박행동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말하며 외현적 행동(예, 씻기, 청소하기, 정돈하기, 확인하기)또는 내현적 행동(예, 숫자세기, 기도하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으로 나타난다(권석만, 2003). DSM-IV에 강박장애가 하나의 단일 진단 군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McKay 등(2004)은 강박장애가 다양한 증상들을 포함하는 이질적인 장애라고 기술하고 있다.

강박장애의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은 증상의 정도(severity)에서 차이를 가진다는 점만 제외하면 강박장애 집단과 비임상집단 모두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유형의 증상을 나타내지만 그 증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강박장애의 진단 유무가 결정되게 된다(Gibbs, 1996). 강박장애의 인지 증상 연구위원회(Obsessive Compulsion Cognitive Working Group; 이하 OCCWG로 표기, 1997)는 강박증상의 해석, 대처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6가지 신념 영역을 채택하였다. OCCWG의 논의 결과 채택된 신념 영역은 (1) 과도한 책임감, (2)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시함, (3) 사고 통제의 중요성, (4) 위협의 과대 평가, (5) 불확실한 것을 견딜 수 없음, (6) 완벽주의다.

강박증을 인지적 모델로 개념화 하고자 하는 노력은 Carr(1974: 권준수 외, 2009에서 재인용)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강박증의 인지행동 모델이 정립되어 강박증의 발달과 유지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강박증의 인지행동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Salkovskis(1985, 1989, 2000)의 인지행동 모델은 과도한 책임감 지각 및 중화 행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는 강박사고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침투적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침투적 사고 그 자체 보다는 침투적 사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alkovskis는 강박장애의 인지모델에서 침투적 사고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구분하였으며, 정서 장해와 중화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침투적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침투적 사고가 역기능적 도식을 활성화시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나타날 때 발생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는 위험(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개인적 책임감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지각하도록 한다. 그 때문에 개인은 지각된 책임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현적(강박사고) 또는 외현적(강박행동) 중화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중화 행동의 결과 침투적 인지는 더욱 현저해져 개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중화행동에 더 몰두하도록 한다. 그로 인해 위험과 책임에 대한 지각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와 중화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Carr(1974: 권준수 외, 2009에서 재인용)을 시작으로 Salkovskis(1985, 1989, 2000)와 Rachman(1998) 등 많은 연구자들이 강박증의 발달과 유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강박증의 인지행동 모델에서 강박증과 책임감의 관련성에 대해

www.kci.go.kr

논의하였다. 하지만 책임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합의되기 전까지 이 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Rhéaume, Freeston, Letarte & Ladouceur, 1995). 현재 강박증의 인지행동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임감의 개념은 1992년 6월 20일 Salkovskis, Rachman, Ladouceur 및 Freeston의 사적인 대화에서 "책임감이란 주관적으로 중요한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중심적인 힘(pivotal power)을 소유하고 있다는 신념이다. 여기에서 부정적 결과들은 강박장애자들에게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각되고, 실세계와 도덕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서로 합의해서 사용되고 있다(Salkovskis et al., 1996: 이순희, 2000에서 재인용). 새롭게 정의된 책임감의 개념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Rhéaume, Freeston, Dugas, Letarte 및 Ladouceur (1995)이 수행한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의 핵심 개념인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중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 이 책임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러 연구자들이 책임감이 강박장애의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는 사실을 제안하고 있으며, 책임감이 다른 장애들과 차별적으로 강박장애에서 중요한 변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Salkovskis(2000)와 Cougle, Lee 및 Salkovskis (2007)는 연구를 통해 강박장애 집단이 비임상 통제 집단과 불안 통제 집단 보다 책임감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알약 분류 과제로 책임감의 고·저를 조작한 Arntz, Voncken과 Goosen(2007)의 실험연구에서도 높은 책임감 조건에 있는 강박장애 환자들이 유의하게 더 많은 확인행동과 강박 증상들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다.

OCCWG가 강박증의 해석, 대처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 신념 영역들 중 완벽주의 역시 강박장애를 개념화 하는데 있어 중요한 신념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Frost, Marten, Lahart 및 Rosenblate(1990)는 완벽주의를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OCCWG(1997)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성으로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조그마한 실수도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McFall과 Wollersheim(1979)은 강박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완벽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비합리적 신념 - '나는 완벽하게 유능하고 적절해야 하며 가치로운 것을 얻고 타인과 나 자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야 한다', '실수를 하거나 완전한 이상(perfectionistic ideals)에 도달하는데 실패하면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아야 한다' - 을 가진다는 인지행동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후 Frost 등(1990)과 Hewitte와 Flett(1991)가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속성을 반영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개발하면서 완벽주의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완벽주의와 강박장애의 관계 역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Wu & Cortesi, 2009).

Rhéaume 등(1995)은 완벽주의와 책임감이 강박증상의 얼마나 강력한 예측변인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책임감과 완벽주의 모두 강박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책임감이 강박 증상을 좀 더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었지만, 책임감을 통제한 뒤에도 완벽주의는 강박 증상을 유의하게 설

www.kci.go.kr

명하는 변인이었다. Rhéaume, Ladouceur 및 Freeston(2000) 역시 완벽주의와 지각된 위험, 책임감 중 어떤 변인이 강박 경향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연구에서 Rhéaume 등(1995)이 시행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Wu와 Cortesi(2009)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완벽주의는 책임감과 우울을 통제한 뒤에도 강박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손은미(2002)가 시행한 연구에서 책임감과 완벽주의 모두 강박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지만, 책임감 보다는 완벽주의가 강박증상을 더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Bouchard, Rhéaume 및 Ladouceur(1999)는 과도한 책임감과 함께 완벽주의가 침투사고의 평가와 개인이 나타내는 강박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높은 책임감 조건에서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로부터 높은 완벽주의 경향성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지각된 책임감을 과대평가하도록 하며, 책임감의 지각에 있어 완벽주의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DSM-IV에 기술되어 있는 강박장애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박장애의 핵심 특징은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 하는 증상이다. 강박장애의 이러한 핵심 특징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기억의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기억 결함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Muller, Roberts, 2005). Wilhem, McNally, Baer 및 Florin(1997)은 강박장애 환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억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확인행동을 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Ecker와 Engelkamp(1995) 또한 확인행동유형의 강박장애자들이 확인행동을 덜 보이는 통제집단에 비해 자신이 수행한 행동을 더 적게 회상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Johnson과 Raye(1981: Muller와 Roberts, 2005에서 재인용)는 강박장애자들이 현실 모니터링(reality monitoring)-어떤 행동을 실제로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행동을 하였다고 상상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기억 결함을 가지는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이후에 수행된 연구들에서 강박장애 환자들은 현실 모니터링 결함은 가지지 않지만 자신이 수행한 것에 대한 기억의 명확도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Woods, Vevea, Chambless & Bayen, 2002; Constans, Foa, Franklin & Mathew, 1995). 즉, 자신이 어떤 행동을 수행한 것에 대해 기억하지만 그 기억이 확실히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명확도를 가져야 하므로,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도한 확인과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자신의 기억에 대한 신념이 강박장애의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기억 그 자체가 아닌 기억확신(memory confidence)과 같은 기억에 대한 신념과 강박증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기억확신은 McNally와 Kohlbeck(1993)에 의해 처음 연구되었다. 두 연구자는 강박장애 집단이 현실 모니터링에서 결함을 보이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기억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강박장애 집단과 통제 집단은 현실 모니터링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강박장애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낮은 기억확신을 가진다

www.kci.go.kr

는 결과를 얻었다. Tolin 등(2001)은 연구에서 강박집단은 기억해야 하는 대상의 속성에 상관없이 즉, 위험한 대상과 안전한 대상 모두에서 더 낮은 기억확신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다. Nedeljkovic과 Kyrios(2007)은 낮은 기억확신이 강박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며, 이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념들을 통제 하였을 때도 독립적으로 이 장애를 설명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기억확신에 대한 여러 연구들과 자신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기억확신에 대한 신념이 강박장애와 관련된 또 다른 신념 영역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박장애의 발달과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책임감, 기억확신과 완벽주의가 강박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속성을 고려하여 여러 정신 병리 증상들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제안되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이 강박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기술된 완벽주의의 정의를 통해 완벽주의는 뭔가 불쾌한 것을 피하려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Yorulmaz, Karancı, Tekok-Kılıç, 2006), 책임감-강박 증상, 기억확신-강박 증상 간의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매개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높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강박증상의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책임감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을 높여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의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면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해 쉽게 만족하기 못하고 더 많은 강박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기억확신 역시 강박증상의 발달에 직접영향을 미치지만, 기억확신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기억에 확신을 가지기 위한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기억확신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강박 증상을 보일 수 있다.

DSM-IV에 강박장애가 하나의 단일 진단 군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강박장애가 다양한 증상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질적인 장애(McKay et. al. 2004)라는 주장과 강박사고는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강박행동은 불안이나 고통을 줄이거나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강박 증상을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책임감과 기억확신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매개되어 강박사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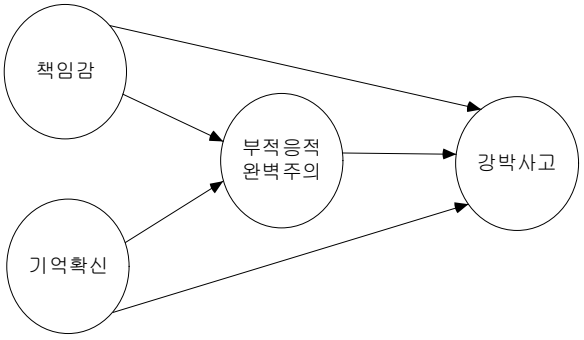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강박사고에 미치는 영향 –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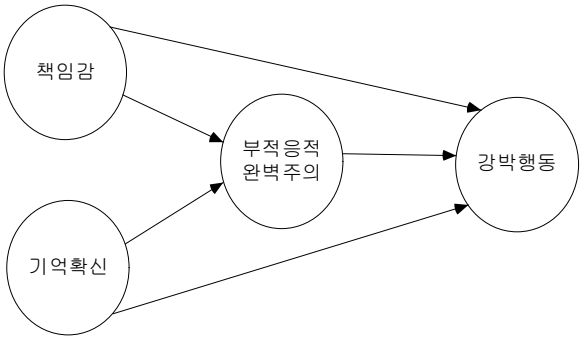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 2: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강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강박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다. 본 연구의 질문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 2와 같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진주, 부산, 청주, 마산 지역의 대학생 4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있는 69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415명의 참여자 중 남성은 223명(53.7%), 여성은 192명(46.3%)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5세(SD=2.49)였다.

측정도구

책임감

책임감을 측정하기 위해 OCCWG(1997)가 개발하고 이순희(2000)가 번안한 강박신념 질문지-책임감 척도(Obsessive Belief Questionnaire -Responsibility, OBQ-R)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알파계수는 .89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Frost등(1990)이 개발하고 현진원(1992)이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al Scale, FMPS)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총 35문항이며,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하위요인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나타내는 4가지 하위 영역-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행동에 대한 의심-에 속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알파계수는 .84였다.

기억확신

기억확신을 측정하기 위해 Nedeljkovic와 Kyrios(2007)가 개발한 기억과 인지 확신 척도(Memory and Cognitive Confidence Scale, MACC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yrios 등

www.kci.go.kr

(1999)이 개발한 기억확신 척도(Confidence In Memory Scale)의 개정 · 단축 버전이다. 기억과 인지 확신 척도는 총 28문항이며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하위 요인은 전반적 기억 능력에 대한 신념(예: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기억에 자신이 별로 없다),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확신(예: 나는 나의 의사결정 능력을 믿지 못한다), 집중하는 것에 대한 확신(예: 어떤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인지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예: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잘 해내기 위해 나 자신에게 많은 압박감을 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하위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기억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알파계수는 .91이었다.

강박증상

강박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Sanavio(1988)가 개발하고 민병배와 원호택(199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Padua 강박질문지(Padua Inventory, 이하 PI)를 사용하였다. Padua 강박질문지는 총 60문항이며 4개의 하위 요인-심성활동에 대한 통제 실패, 충동과 행동 통제 상실에 대한 걱정, 확인행동, 오염-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의 하위 요인 중 강박사고의 측정을 위해 심성 활동에 대한 통제 실패, 충동과 행동 통제 상실에 대한 걱정 하위 요인을 사용하였고, 강박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확인행동, 오염 하위 요인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알파계수는 .96이었다.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으며, 모형을 검증하는데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SPSS 15.0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제안된 모형은 Amos 7.0을 통해 검증되었다.

결 과

각 변인 간 상관관계

책임감, 기억확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강박 증상 간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책임감과 기억확신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

표 1. 각 변인 간 상관관계

	M(SD)	1	2	3
1. 책임감	71.70(12.67)			
2. 기억확신	19.44(6.14)	.091		
3. 부적응적 완벽주의	52.60(9.34)	.353**	.217**	
4. 강박 증상	92.14(27.93)	.318**	.307**	.472**

**p<.01

www.kci.go.kr

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강박사고에 미치는 영향-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모형 1)

책임감, 기억확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강박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평가하였다. 연구모형 1의 적합도는 χ^2=158.4(p=.000), *TLI(NNFI)*=.914, *CFI*=.940, *GFI*=.935, *RMSEA*=.087로 매우 높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강박사고 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2). 책임감과 기억확신, 부적응적 완벽주의 모두 강박사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Sobel-Z값을 산출하여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책임감 → 부적응적 완벽주의 → 강박사고' 경로의 경우 Z_{ab}=3.73(p=.000), '기억확신 → 부적응적 완벽주의 → 강박사고'경로의 경우 Z_{ab}=3.03(p=.002)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부분매개되는지 혹은 완전매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연구 모형 1)과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 1, 2, 3은 각각 내재화된(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χ^2차이 검증을 통해 비교가 능하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완전매개 모형 1, 2간의 자유도 차이는 1이기 때문에 χ^2의 차이가 3.84(p=.05)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연구모형과 완전매개 모형 3간의 자유도 차이는 2이기 때문에 χ^2의 차이가 5.99(p=.05)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본다. 완전매개모형 1(책임감)의 χ^2값은 부분매개모형에 비해 9.6증가하여 부분매개 모형이 더 나은 모형으로 나타났고, 완전매개모형 2(기억확신)의 경우에도 χ^2값이 15.4증가하여 부분매개 모형이 더 좋은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책임감과 강박사고, 기억확신과 강박사고의 직접효과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 3 역시 χ^2값이 21.0 증가하여 부분매개 모형이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책임감, 기억확신 및 부정적 완벽주의와 강박사고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분매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표 2. 연구 모형 1: 강박사고 모형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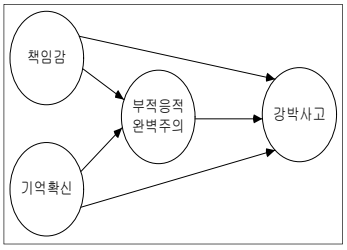
	비표준화	표준화	S.E.	t	p
책임감 → 부적응적 완벽주의	.071	.420	.013	5.279***	.000
기억확신 → 부적응적 완벽주의	.049	.260	.013	3.863***	.000
책임감 → 강박사고	.604	.187	.177	3.420***	.000
기억확신 → 강박사고	.685	.190	.181	3.793***	.000
부적응적 완벽주의 → 강박사고	8.454	.444	1.655	5.108***	.0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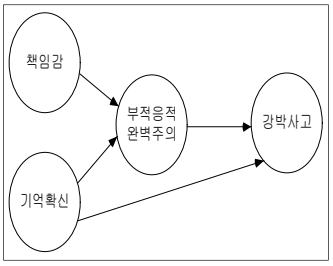
www.kci.go.kr

표 3.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비교- 연구모형 1: 강박사고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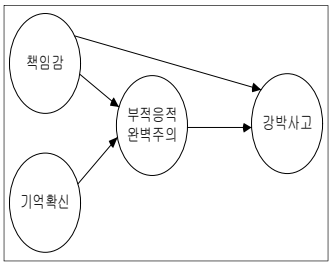
경로	χ^2	*df*	$\Delta\chi^2$
완전매개모형 1	168.0	39	9.6
연구모형1(부분매개모형)	158.4	38	
완전매개모형 2	173.8	39	15.4
연구모형1(부분매개모형)	158.4	38	
완전매개모형 3	179.4	40	21.0
연구모형 1(부분매개모형)	158.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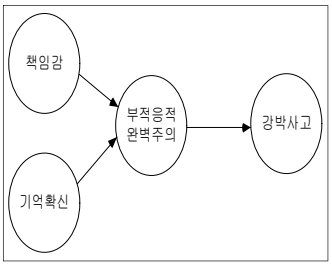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부분매개모형 - 연구모형 1



완전매개모형 1
(책임감)



완전매개모형 2
(기억확신)



완전매개모형 3
(책임감 - 기억확신)

그림 3.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 및 완전모형 비교 - 연구 모형1: 강박사고모형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강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모형 2)

연구모형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모형 2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2의 적합도는 χ^2=118.2(p=.000), *TLI(NNFI)*=.937, *CFI*=.956, *GFI*=.952, *RMSEA*=.071로 매우 높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www.kci.go.kr

표 4. 연구 모형 2: 강박행동 모형의 경로계수

	비표준화	표준화	*S.E.*	*t*	*p*
책임감 → 부적응적 완벽주의	.070	.422.	.013	5.182***	.000
기억확신 → 부적응적 완벽주의	.040	.234	.013	3.223***	.001
책임감 → 강박행동	.194	.153	.090	2.167*	.030
기억확신 → 강박행동	.104	.079	.070	1.480	.139
부적응적 완벽주의 → 강박행동	4.121	.539	.895	4.602***	.000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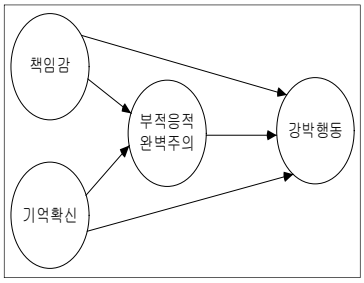
표 5.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비교- 연구모형 2: 강박행동 모형

경로	χ^2	*df*	$\Delta\chi^2$
완전매개모형1	122.6	39	4.4
연구모형2(부분매개모형)	118.2	38	
완전매개모형2	120.5	39	2.3
연구모형2(부분매개모형)	118.2	38	
완전매개모형3	124.0	40	5.8
연구모형2(부분매개모형)	118.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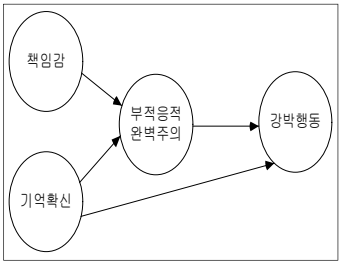
강박행동 모형에서 기억확신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책임감, 부적응적 완벽주의)만 강박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연구 모형 2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Sobel-Z값을 산출하여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책임감 → 부적응적 완벽주의 → 강박행동' 경로의 경우 Z_{ab}=3.49(p=.000), '기억확신 → 부적응적 완벽주의 → 강박행동'경로의 경우 Z_{ab}=2.55(p=.010)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부분매개되는지 혹은 완전매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연구 모형2)과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였다(그림 4). 완전매개모형 1(책임감)의 χ^2값은 부분매개모형에 비해 4.4증가하여 부분매개 모형이 더 나은 모형임을 알 수 있고, 완전매개모형 2(기억확신)의 경우 χ^2값이 2.3증가하여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책임감과 강박사고, 기억확신과 강박사고의 직접효과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 3 역시 χ^2값이 5.8증가하여 완전매개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통해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2)보다 완전매개모형 2가 강박행동을 설명하는 더 적합한 모형이라는 결과를 얻어, 완전매개 모형 2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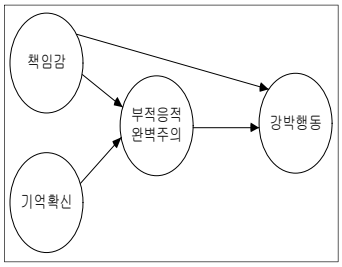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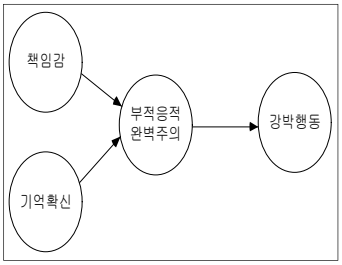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분매개모형 - 연구모형 2



완전매개모형 1
(책임감)



완전매개모형 2
(기억확신)



완전매개모형 3
(책임감 - 기억확신)

그림 4.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 및 완전모형 비교- 연구 모형2: 강박행동모형

논 의

본 연구는 강박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안되고 있는 책임감,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기억확신이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DSM-IV에 따르면 강박장애가 단일 진단군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러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박증상을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강박사고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연구 모형 1의 적합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받아들일만한 수준이었다. 책임감, 기억확신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 모두 강박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의 기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강박사고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모형 1에서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매개 되어 강박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책임감과

www.kci.go.kr

기억확신이 부정적인 완벽주의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은 부정적인 완벽주의가 강박사고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강박장애 집단의 책임감 수준이 비임상 통제집단과 불안통제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으며(Salkovsikis, 2000; Cougle et al., 2007),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강박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고(손은미: 2000; Rhéaume, 2000), 기억확신에 대한 신념이 강박증상과 관련된 또 다른 신념 영역일 것이라 주장(Nedeljkovic, 2007)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수행된 많은 연구들이 강박증상 중에서도 강박사고 보다 강박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에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강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2의 적합도 역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받아들일만한 수준이었다. 연구 모형 2에서 책임감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강박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기억확신은 강박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쟁모형들 가운데 기억확신이 강박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형(기억확신 완전매개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이 최종 선정된 모형에서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매개되어 강박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책임감 또한 직접적으로 강박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억확신은 직접적으로 강박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강박행동은 책임감이 높을수록 증가하나 기억확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다.

연구 모형 1(강박사고 모형)과 연구모형 2(강박행동 모형)의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책임감과 기억확신 그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 결과는 이전에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책임감이 강박장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Salkovskis (1985)와 Rachman(1998)이 책임감을 핵심으로 하는 강박증의 인지행동 모델을 제안하면서 책임감과 강박장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책임감보다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강박사고, 강박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통해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쳐 강박증상의 발생과 유지를 돕는 것으로 보인다. 즉,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개인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성향에 영향을 미쳐 해로운 결과를 막기 위해 (책임감) 자신이 수행한 행동이 적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만족하지 못해 더 나은 행동(강박증상)을 하려 할 것이고, 어떤 일에 대해 올바른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확신을 갖기 위해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기억확신)하고 계속해서 기억을 확실히 하기 위한 행동(강박증상)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확신은 강박사고에 직접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강박행동에는 직접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강박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

www.kci.go.kr

렇게 기억확신이 강박행동에 대한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억확신의 심리적인 속성 때문으로 여겨진다. Nedeljkovic과 Kyrios(2007)은 기억확신에 대한 여러 연구들과 자신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기억확신에 대한 신념이 강박장애와 관련된 또 다른 신념 영역이라는 주장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이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Rheaume 등(1995)은 완벽주의가 강박장애에 있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가정하였고, 책임감과 강박증상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완벽주의와 강박증상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매개되어 강박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강박증상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는 사실임을 시사한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책임감, 기억확신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강박증상간의 단편적 관계를 알아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심리적 변인들이 서로 인과적인 관계를 지니고 강박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강박증상의 선행변인들을 밝혔다. 이런 인과적 관계의 발견은 향후 강박장애의 예방과 중재에서 다루어야할 중요한 변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한점 및 장래 연구

본 연구는 책임감, 기억확신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강박증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임을 확인한데 그 의의를 지닌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이며 평균 연령 21.5세로 대부분 20대 초반이라는 점과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인 집단 뿐 아니라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수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임상집단에서도 유의한지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강박사고 측정을 위해 사용한 Padua 강박질문지의 하위 영역들-심성활동에 대한 통제 실패, 충동과 행동 통제 상실에 대한 걱정 - 이 강박사고와 걱정을 함께 측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Burns, Keortge, Formea와 Sternberger(1996)는 PI가 Penn State 걱정질문지(PSWQ)와 상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Padua 척도-워싱턴 주립대학 개정판(PI-WSUR)을 새롭게 만들었다. 걱정질문지와 상관이 낮은 PI-WSUR을 사용하였을 때,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완벽주의 중 적응적 완벽주의가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개인 기준의 경우 자기 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긍정적인 성취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김윤희, 서수균, 2008). 이와 같이 적응적 완벽주의의 경우 강박증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하지 않은 책임감, 기억확신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강박증상(사고, 행동)간에 인과관계 모형이 여럿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과 다른 인과모형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발달과 유지에 관련된 심리학적 변인들 가운데 본 연

www.kci.go.kr

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인들이 포함된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고 이들의 모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비교하는 연구도 가치 있는 일이다.

참고문헌

권석만 (2003).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권준수 외 (2009). 강박증의 통합적 이해. 학지사.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 581-613

민병배, 원호택 (1999). 한국판 Maudsley 강박행동질문지와 Padua강박질문의 신뢰도 타당도.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8, 163-182.

손은미 (2002). 완벽성향과 책임지각이 수행불안과 강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이순희 (2000). 도덕적, 인과적 책임감 및 불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강박증상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 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test rev.).* washington, DC.

Arntz, A., Voncken, M., Goosen, A. C. A. (2007). Responsib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 experimental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425-435.

Bouchard, C., Rhéaume, J., & Ladouceur, R. (1999). Responsibility and perfectionism in OCD: an experimental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239-248.

Burns, G. L., Keortge, S., Formea, G., & Sternberger, L. (1996). Revision of the Padua Inventor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ymptoms: Distinction between worry, obsession, and compul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163-173.

Constans, J. I., Foa, E. B., Franklin, M. E., & Mathews, A. (1995). Memory for actual an imagined events in OC check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571-665.

Cougle, J. R., Lee, H. J. & Salkovskis, P. M. (2007). Are responsibility beliefs inflated in non-checking OCD pati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 153-159.

Ecker, W., Engelkamp, J. (1995). Memory for action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and cognitive Psychotherapy, 23,* 349-371.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Gibbs, N. A. (1996). Nonclinical Populations In Research O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729-773.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Kyrio, M., Wainwright, K., Purcell, R., Pantelis, C., & Maruff, P. (1999). Neuropsychological predictors of outcome following cognitive

www.kci.go.kr

behaviour therapy for OCD. A pilot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ur Therapy, Toronto, Canada.*

McFall, M. E., & Wollersheim, J. P. (1979). Obsessive-compulsive neurosis: A cognitive -behavioral formulation and approach to trea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 333-433.

McKay, D., Abramowitz, J. S., Calamari, J. E., Kyrios, M., Radomsky, A., Sookman, D., Taylor, S. & Wilhelm, S. (2004). A critical evaluation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ubtypes: Symptoms versus mechanis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283-313.

McNally, R. J. & Kohlbeck, P. A. (1993). Reality monitoring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249-253.

Muller, J. & Roberts, J. E. (2005). Memory and attent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review.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9,* 1-28.

Nedeljkovic, M. & Kyrios, M. (2007). Confidence in memory and other cognitive process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2899-2914.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1997). Cognitive Assessment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667-681.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2005).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obsessive belief questionnaire and interpretation of intrusions inventory-Part 2: Factor analyses and testing of a brief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1527-1542.

Rachman, S. (1998).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elabor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385-401.

Rhéaume, J., Freeston, M. H., Dugas, M. J., Letarte, H. & Ladouceur, R. (1995). Perfectionism, responsib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785-794.

Rhéaume, J., Ladouceur, R. & Freeston, M. H. (2000). The prediction of obsessive-compulsive tendencies: does perfectionism play ansignificant ro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583-592.

Salkovskis, P. M. (1985). Obsessional-Compulsive Problems: A Cognitive-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571-583.

Salkovskis, P. M. (1989). Cognitive-behavioural factors and the persistence of intrusive thoughts in obsessional proble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 677-682.

Salkovskis, P. M., Wroe, A. L., Gledhill, A., Morrison, N., Forrester, E., Richards, C., Reynolds, M. & Thorpe, S. (2000). Responsibility attitudes and interpretations are characteristic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347-372.

Sanavio, E. (1988). Obsessions and compulsions: The Padua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 169-177.

Tolin, D. F., Abramowitz, J. S., Brigidi, B. D., Amir, N., Street, G. P. & Foa, E. B. (2001). Memory and memory confidenc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913-927.

Wilhem, S., McNally, R. J., Baer, L., & Florin, I.

www.kci.go.kr

(1997). Autobiographical memory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21-31.

Wood, C. M., Vevea, J. L., Chambless, D. L., & Bayen, U. J. (2002). Are compulsive checkers impaired in memor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 353-366.

Wu, K. D. & Cortesi, G. T. (2009). Relations between perfectionism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Examination of specificity among the dimensio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 393-400.

Yorulmaz, O., Karanci, A. N., Tekok-Kilic, A. (2006). What are the role of perfectionism and responsibility in checking and cleaning compulsio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 312-327.

원고접수일 : 2010. 11. 24.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1. 2. 28.
게재결정일 : 2011. 3. 11.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3, 629-645

Effects of Memory Confidence and Responsibility on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Mediation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Song, Min Jeong **Rhee, MinKyu**

Dep.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responsibility, memory confidenc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on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Four hundred fifteen college students (223 male students (53.7%) and 192 female students (46.3%)) from Jinju, Busan, Cheongju, and Masa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ir average age was 21.5. To measure the variables of this study, we used the Obsessive Belief Questionnaire-Responsibility (OBQ-R),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al Scale (FMPS), the Memory and Cognitive Confidence Scale (MACCS), and the Padua Inventory (PI).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t was verified that responsibility, memory confidenc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Responsibility and memory confidence influenced the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with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or. This finding indicated that maladaptive perfectionism is a critical variable for the generation and continuation of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memory confidence, responsibility, maladaptive perfectionism,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www.kci.go.kr